

■ ‘호랑이 못’ 갈아 입은 최 희 섭

방망이 무섭다

“무섭다. 이 정도로 강할지는 몰랐다.”

최희섭의 프리배팅을 도운 김태룡 KIA코치는 훈련내내 “무섭다”라는 말을 연신 내뱉었다.

한국 프로야구 데뷔를 앞두고 광주제일고에서 훈련중인 최희섭의 모습을 지켜본 KIA 코칭스태프들도 그의 파워 넘치는 방망이에 혀를 내둘렀다.

최희섭은 14일 모교인 광주제일고 운동장에서 프리배팅 및 실전배팅을 하면서 연이어 홈런포를 쏘아댔다.

초반 3개는 내야로 떨어지더니 4번째 타구부터 외야 깊숙한 부분으로 쏘아내기 시작했고 중반에는 대부분의 타구가 펜스 근처 또는 홈런성 타구로 날아갔다.

배팅볼을 던지던 김태룡 코치는 18번째 타구가 운동장 밖 수위실(140m 지점)을 맞히자 “불안해서 못 던지겠다. 타구가 너무 멀리 날아간다”며 너스레를 떨기도 했다.

이후 타구는 좌·중·우를 가리지 않고 폭폭 뻗어나갔고, 프리배팅을 지켜보던 KIA 구단 관계자들의 입에서는 ‘와~’라는 탄성이 절로 터져 나왔다. 모두 45개의 프리배팅 중 최희섭이 뽑아낸 홈런은 모두 14개.

프리배팅 45개 중 14개 답장 넘겨

KIA 코치 “이렇게 강할지 몰랐다”

컨디션 회복땀 가공할 파워 예상

■ 최희섭 프리배팅 홈런 14개 방향 분석



투수가 직접 던지는 실전배팅에서도 지구 최고 구속 147km를 뿌려대는 우완 김성계를 상대로 18개의 타구 중 모두 5개의 홈런을 뽑아냈고, 다른 타구들도 대부분 외야 깊숙이 떨어지거나, 직선타로 날아갔다.

이어 좌완 박정규와의 대결에선 모두 7개의 타구 중 2개가 중월 110m 지점에 박혔다.

김성계와 박정규는 훈련 후 “몸집이 약하다고 해 몸쪽을 집중적으로 던졌는데, 너무 잘 때려내더라”면서 “오히려 바깥쪽 공이 더 약한 것 같고, 타석에 서 있는 자체가 위협적이었다”고 첫 대결 소감을 밝혔다.

김태룡 코치도 “(최)희섭의 컨디션이 70% 밖에 안 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대단히 놀라운 모습이다”며 “방망이 헤드가 부드럽게 넘어가고, 타구의 속도나 질도 국내 타자들과는 그 차원이 다르다. 역시 메이저리거 출신”이라며 엄지손가락을 치켜 들었다.

최희섭은 이날 훈련 뒤 인터뷰에서 “공들이 눈에 잘 들어오고 컨디션도 좋다. 다만 시차 적응이 안 돼 피곤한 감은 좀 있지만 조만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감을 나타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주중에 대타 출전 주말쯤 선발 가능”

■ KIA 서정환 감독

“주중에 대타 출전은 가능, 선발출전은 주말”

KIA 최희섭의 데뷔전이 전격 연기됐다. 주중 현대전이 아니라 주말 잠실 두산전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타 기용은 주중에도 가능하다.

서정환 KIA감독은 14일 열린 최희섭의 입단식에서 “본인이 조금 더 시간을 갖기를 원한다”며 “당초 계획대로 15일 수원 현대전에 선발출전 시키기는 힘들게 됐다”고 밝혔다. 서 감독은 “타격은 관창은데 러닝과 송구 등에 문제가 있다. 입단 원정경기 동안 같이 움직이면서 상황을 체크해서 출전시기를 결정하겠다. 주말 잠실 두산전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서 감독은 “당장 나왔으면 좋겠지만 급하게 서두르다 부상을 당하는 등 잘못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바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다”라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서 감독은 대타 기용 여부에 대해서는 “고민중이다. 대타로는 15일 현대전에도 출전할 수는 있다”라며 최희섭의 첫 출전 가능성을 시사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최현배기자 choi@r

이지영 아쉬운 역전패

연장서 페테르센에 무릎...2주 연속 우승 무산

LPGA 미켈롭 울트라 오픈 최종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서 한국 선수의 2주 연속 우승 세리머니는 아쉽게 무산됐다.

이지영(22·하이마트·사진)은 14일(한국시간) 버지니아주 윌리엄스버그의 킹스밀골프장 리버코스(파71·6천315야드)에서 열린 LPGA 투어 미켈롭 울트라 오픈 최종 라운드에서 수잔 페테르센(노르웨이)과 치른 연장전에 패해 준우승에 그쳤다.

4라운드에서 1오버파 72타를 친 이지영은 처 3타를 줄이며 추격한 페테르센에게 공동 선두(10언더파 274타)를 허용한 데 이어 18번홀(파4)에서 열린 연장 세 번째 홀에서 파를 지키지 못해 분투를 삼켰다.

지난 2월 필즈오픈에 이어 시즌 두번째 준우승. 유럽투어에서 뛰다 2003년 LPGA 투어에 들어온 페테르센은 올해 두 차례나 최종 라운드에서 역전 패한 아쉬움을 씻어냈다. 우승 상금 33만 달러를 차지한 그는 상금랭킹 2위(68만3천594 달러)로 도약했다.

이지영에 1타차 2위로 최종 라운드에서 동반 플레이를 펼친 이정연(28)은 3오버파 74타로 부진, 일찌감치 우승 경쟁에서 밀려났지만 3위(7언더파 277타)에 올라 시즌 최고 성적을 냈다.

지난해 신인왕 이선화(20·CJ)는 2타를 잃었지만 공동 7위(4언더파 280타), 박세리(30·CJ)는 1언더파 70타를 쳐 공동 10위(3언더파 281타)로 대회를 마쳤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탱크’ 최경주의 저력

6년 연속 상금 100만 달러

‘탱크’ 최경주(37·나이키골프)가 미국프로골프(PGA) 투어에서 6년 연속 시즌 상금 100만달러를 돌파했다.

최경주는 14일(한국시간) 플로리다주 폰테베드라비치의 소그래스 TPC 스타디움코스(파72·7천93야드)에서 열린 플레이어스 챔피언십 최종 4라운드에서 1타를 줄여 함께 2언더파 286타로 공동 23위에 이름을 올렸다.

이 대회에서 상금 8만100달러를 보낸 최경주는 올 시즌 14개 대회에서 모두 103만3천829달러를 받아 6년 연속 시즌 상금 100만달러를 돌파하며 PGA 투어 정상급 선수로 자리매김했다.

우승 상금 162만달러는 최종 라운드에서 3타를 줄여 최종 함께 11언더파 277타를 친 필 미켈슨(미국)이 차지했다. 지난 2월 AT&T 페블비치 내셔널 프로오픈에 이어 시즌 두번째 우승.

최경주는 정교한 아이언샷을 앞세워 2번홀(파5)에서 버디를 잡아내며 기본종계 출발했지만 7번홀(파4)에서 1타를 잃은 뒤 11번홀(파5)에서 버디를 추가하는 데 그쳐 더 이상 순위를 끌어 올리지 못했다.

지난 3월에는 ‘톱10’ 입상조차 못해 타이거 우즈(미국)에 완벽하게 밀리는 듯 했던 미켈슨은 앞선 두 차례 대회에서 연속 3위에 오른 데 이어 ‘제5의 메이저’로 불리는 특급 대회에서 우즈, 비제이 싱(피지) 등을 따돌리고 정상에 올라 ‘넘버원’ 경쟁에 다시 불을 지폈다.

미켈슨은 상금랭킹 1위 우즈에 불과 6만달러 뒤진 2위(412만달러)로 올라섰고 세계랭킹도 3위에서 2위로 복귀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서재응 2승

토론토전 70닝 7K 무실점 쾌투



‘컨트를 아티스트’ 서재응(30·탬파베이 데블레이스)이 올 시즌 처음 무실점의 완벽투를 펼치며 2승째를 올렸다.

서재응은 14일(한국시간) 캐나다 온타리오주 토론토의 로저스센터에서 벌어진 미국프로야구 토론토 블루제이스와 방문 경기에 선발 등판, 7이닝 동안 안타와 볼넷을 2개씩만 내주고 삼진을 7개나 속아내는 활약을 펼치며 점수를 한 점도 주지 않았다.

그는 팀이 1-0으로 앞선 8회 브라이언 스톡스로 교체됐다. 양팀은 9회 1점씩을 주고 받았으나 결승점을 잘 지킨 탬파베이가 2-1로 승리, 서재응은 지난달 22일 클리블랜드전에서 마수잡이 승을 신고한 이후 이후 4번째 선발 등판 만에 2승째를 거뒀다.

더욱이 개인 통산 100번째 선발 등판(전체로는 115번째 등판)이었고, 지난 7일 오클랜드전부터 이어온 팀의 6연패를 끊는 호투여서 기쁨이 두 배가 됐다. 한국인 박리거 중 통산 선발등판 수는 275회를 기록 중인 박찬호(34·뉴욕 메츠)에 이어 서재응이 두 번째다.

공은 102개를 뿌렸고 61개를 스트라이크로 쏘았다. 시즌 성적은 2승3패, 평균자책점은 7.26이 됐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팀 PO진출 전인차 되겠다”

■ 최희섭 입단식 인터뷰

미국 프로야구에서 돌아온 ‘거포’ 최희섭(28)이 드디어 호랑이 유니폼을 입었다.

최희섭은 14일 오전 11시 광주시 내방동 구단 사무실에서 정재공 KIA 단장과 서정환 감독 등 구단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입단식을 갖고 공식적인 ‘KIA맨’이 됐다.

배번 ‘23’이 새겨진 유니폼과 모자를 받아든 최희섭은 “KIA 유니폼을 입게 돼 기쁘다. 처음 야구를 시작했을 때 KIA에 오고 싶었는데 꿈을 이루게 됐다. KIA 선수들과 관계자들이 잘 대해주셔서 감사하다”고 환하게 웃었다.

그는 또 “개인 기록보다 팀을 위한 선수가 되겠다. 컨디션을 빨리 올려 팀이 플레이오프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전인차 역할을 하고 싶다. 이승엽 선배를 목표로 열심히 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최희섭은 또 “너무 열렬히 환영해 준 고향팬들에게 고맙고,



최희섭이 14일 KIA 구단 사무실에서 입단식을 갖고 배번 23번이 부여된 유니폼을 입은 뒤 서정환 감독(왼쪽) 및 정재공 단장(오른쪽)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그들의 사랑이 큰 힘이 된다”면서 약혼녀인 아사다 아야 씨와의 결혼 계획을 묻는 질문에는 “약혼녀는 미국에서 살기를 원하고, 나는 한국에서 살고싶기 때문에 논의를 더 해야한다. 구

체적인 결혼 계획은 아직 잡지 못했다”고 말했다.

최희섭은 이 밖에 “투수들의 변화구와 제구력이 너무 좋아 적응이 우선이다. 처음에 고전할 것 같다”며 국내 투수들에 대해 경계감을 나타내기도 했다.

한편 1999년 시카고 컵스와 계약해 미국 무대에 진출했던 최희섭은 2002년 메이저리그에 데뷔한 뒤 플로리다 말린스와 LA 다저스를 거치면서 363경기에 출전해 홈런 40개, 타율 0.240(915타수 220안타) 120타점, 130득점을 기록했다.

하지만 올해 초 탬파베이와 2년간 195만달러에 계약했으나 개막전 로스터에 포함되지 못하자 국내 복귀를 놓고 고심해왔다.

KIA는 지난 3월 말 최희섭을 해외파 우선 지명 선수로 결정한 뒤 줄다리기 협상 끝에 지난 10일 계약금 8억원, 연봉 3억5천만원, 옵션 4억원 등 최대 15억5천만원에 입단 계약하는데 성공했다.

해외에서 뛰다 국내에 복귀한 17번째 선수인 최희섭은 지난 11일 입국해 다음날부터 곧바로 광주구장에서 타격훈련을 시작하는 등 의무를 불태우고 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